

상승세 탄 KIA “무조건 직진”



지난 14일 한화아이스파크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5대2 승리를 거두며 2연속 스윙을 완성한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경기 후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주중 원정 SSG·홈 NC 6연전 선두 굳히기 분수령

‘완벽 선발·철벽 불펜·막강 화력’ 무장…“거칠 것 없다” 2연속 스윙 저력, 승수쌍기 시동 “초반 독주 이어간다”



올 시즌 V12를 노리고 있는 KIA 타이거즈가 이번 주 선두 수성의 분수령이 될 6연전을 갖는다.

최근 6연승으로 파죽의 상승곡선을 그린 KIA는 주중 2위 NC, 4위 SSG와 격돌한다.

KIA는 두 팀을 제물로 선두 굳히기에 들어간다는 각오다.

15일 현재 KIA가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고, NC가 한게임 반차로 뒤를 쫓고 있다.

SSG도 NC와 불과 한게임 반차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KIA는 연승할 경우 1위를 굳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반면, 연패시에는 숨막히는 순위 싸움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KIA는 우선 SSG와 주중 3연전을 갖기 위해 문학 원정길에 오른다.

SSG는 지난 주 4승 2패를 거두며, 호시탐탐 상위권 등극을 노리고 있다. 타선에선 최정(8 홈런), 한유섭(7홈런) 거포 듀오가 나란히 리그 홈런 1, 2위를 달리고 있고, 뒷문에선 베테랑 노경은과 고효준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

SSG의 불펜 평균자책점은 3.46으로 KIA에 이어 2위다. 특히 올 시즌 5회까지 앞선 경기는 아직까지 패한 기록이 없다.

필승조 노경은은 6홀드로 이 부문 KIA의 전상현과 공동 1위에 올라있고, 문승원도 세이브 5개로 3위에 있다.

SSG는 3연전 선발투수로 김광현-엘리아스-더거를 마운드에 올린다.

KIA는 첫 경기 선발로 부상으로 빠진 이의리를 대신해 김건국이 등판하고, 2-3차전은 크로우와 윤영철이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SSG와의 3연전에 이어 KIA는 NC와 홈에서 주말 3연전을 치른다.

1위 자리를 넘보고 있는 2위 NC는 평균자책점(3.71) 2위, 타율(0.284) 4위로 올 시즌 초반 비교적 투타의 안정적인 전력을 자랑한다.

특히, 선발투수 평균자책점은 3.08로 리그 전체 1위다. 대니얼 카스타노와 카일 하트 두 외국인 활약이 인상적이다. 카스타노는 4경기에 등판해 패배없이 3승을 수확했고, 하트도 4경기에서 2승 무패를 기록했다. 다만, 불펜진은 4점대의 평균자책점을 보이며 강한 마무리와는 거리가 있다. KIA로선 불안한 NC의 뒷문

프로야구 팀별 순위 <15일 현재>

순위	팀명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KIA	14	4	0	0.778	0
2	NC	13	6	0	0.684	1.5
3	키움	11	6	0	0.647	2.5
4	SSG	12	8	0	0.600	3
5	LG	9	10	1	0.474	5.5
6	한화	9	10	0	0.474	5.5
7	두산	9	11	0	0.450	6
8	삼성	8	10	1	0.444	6
9	kt	5	15	0	0.250	10
10	롯데	4	14	0	0.222	10

을 얼마나 공략할 수 있느냐가 승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KIA는 지난 주 개막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인 6연승을 올렸다.

안정적인 투타 밸런스의 힘이다. 타선은 지난 주에만 0.322 타율을 기록했다.

한준수가 5할의 타율을 때리며 공격을 이끌었고, 김도영이 4할대, 최원준과 서건창, 이우성도 3할대의 화력을 과시했다.

마운드에선 네일과 크로우의 원투펀치가 완벽 투구를 펼쳤고, 토종 에이스 양현종과 윤영철도 팀 연승에 기여했다. 마무리 정해영을 비롯 장형식, 전상현 등 필승조는 무실점 피칭으로 2연속 스윙 시리즈를 완성했다.

매서운 기세를 자랑하고 있는 KIA가 이번 주에도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 상승세를 이어갈지 주목되고 있다. /주홍철 기자

“광주와의 좋은 인연 우승으로 풀어낼 것”

‘광주오픈 첫 호흡’ 송민규-이재문 ‘남다른 각오’

2019년 광주오픈 복식에서 각각 준우승과 8강의 성적을 거뒀던 송민규와 이재문(이상 KDB산업은행)이 5년 만에 광주 무대에 선다.

송민규와 이재문은 지난 14일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ATP(프로테니스협회) 광주오픈 챌린저 2024 참가를 앞두고 사전 훈련을 가졌다.

와일드카드를 복식 16강에 진출한 이들은 모리야 히로키-리오 노구치(이상 일본) 조와 맞붙는다.

훈련을 마친 직후 송민규는 “2018년과 2019년 광주오픈에 참가해 우승과 준우승으로 좋은 기억이 있다”며 “광주오픈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으로써 더 좋은 선수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된 대회”라고 밝혔다.

이재문도 “2018년과 2019년 국군체육부대 소속으로 광주에 왔었다”며 “단식과 복식에 모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는데 좋은 결과가 있도록 열심히 뛰어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광주오픈에서는 처음으로 호흡을 맞춘다. 지난해 6월 ITF(국제테니스연맹) 대구 국제 테니스 대회에서 본격적으로 호흡을 맞추기 시작한 뒤 챌린저 투어는 지난 주 부산오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송민규는 “광주에서 오랜만에 재문 이와 시합을 참가하게 돼 기분이 좋다. 국내 대회는 더 큰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기 때문에 굉장히 신난다”며 “홈 코트나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경기를 뛰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문도 “한국에서 경기를 하면 많은 응원을 받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편하다”며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다. 5년 전의 좋았던 기억을 되살려보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에게는 이번 광주오픈이 같은 KDB산업은행 소속으로서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송민규는 “같은 팀이지만 복식을 따로 활동했는데 이제 2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며 “광주오픈에서 와일드카드 좋은 기회를 받은 만큼 준결승을 넘어 결승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재문 역시 “이왕 대회에 도전하는 김에 우승까지 할 수 있도록 목표를 높게 잡았다. 민규 형과 조지력을 잘 맞춰서 차근차근 풀어나가 보겠다”고 부연했다. /박희중 기자



송민규(왼쪽)와 이재문이 지난 14일 광주 진월 국제테니스장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시테니스협회 제공>

세플러, 두 번째 그린자켓 우즈는 최하위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세플러(미국)가 15일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터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마스터스 최종 라운드에서 함께 11언더파 277타로 우승한 뒤 지난해 우승자 온 램이 입혀주는 그린자켓을 입고 있다. 세플러는 2022년에 이어 두 번째 마스터스 정상에 올랐다. 한편, 24연속 연속 컷 통과와 위업을 달성한 타이거 우즈(미국)는 5타를 잃고 컷을 통과한 60명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우즈가 제출한 16오버파 304타는 그가 프로 무대에 나선 이후 최악의 스코어다. /로이터-연합뉴스

한국축구,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 ‘스타트!’

첫판 ‘다크호스’ UAE 넘어라

내일 0시30분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1차전 ‘방심은 금물’

황선홍호가 중동의 ‘다크호스’ 아랍에미리트(UAE)를 상대로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향한 도전을 시작한다.

황선홍 감독이 지휘하는 23세 이하(U-23) 축구 대표팀은 17일 새벽 0시30분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UAE와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B조 1차전을 치른다.

이 대회에는 2024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권 3.5장이 걸려있다.

황선홍호가 3위 안에 들면 파리행 직행 티켓을 손에 쥔다. 한

국 축구는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본선 10회 연속 진출의 대업을 이룬다.

황선홍호가 중국과 2차전, 일본과 3차전을 치르는 가운데, 첫 상대인 UAE 역시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전력을 갖춘 팀이어서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된다.

A대표팀에서 이미 입지를 다진 선수들이 많은 UAE U-23 대표팀은 그래서 경계해야 할 상대다.

주축 공격수인 술탄 아딜 알야미리는 이미 A매치 10경기에서 5골을 기록 중이다.

특히 최근 자신이 출전한 A매치 4경기에서 모두 득점포를 가동하는 등 상승세가 가파르다. 이밖에 측면 수비수 바데르 나세르 모함마드, 자예드 술탄 알자비 등 여러 선수들이 A대표팀에서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다.

반면 황선홍호에서는 엄지성(광주), 정상빈(미네소타), 강성진(서울) 정도가 A대표팀에 몸담은 바 있을 뿐이다. 이들 모두 A대표팀 ‘주전’은 아니다.

프로나 A대표팀에서 성인 무대 경험을 충분히 했으나 소속팀이 차출에 응하지 않은 배준호(스토크시티), 양현준(셀틱)의 빈자리가 커 보인다.

UAE는 이번 대회 전초전 성격으로 열린 지난달 서아시아축구연맹(WAFF) U-23 챔피언십에서 1무 2패로 8개 참가국 중 8위에 그쳤다. 한국은 이 대회에서 우승했다.

황선홍호는 또 UAE를 상대로 최근 2연승을 포함해 2승 1패를 기록 중이다.

그러나 WAFF U-23 챔피언십, 그리고 UAE와의 세 차례 맞대결 모두 전선전에 불과했다. 이번 U-23 아시안컵이 ‘진짜 승부’다. /연합뉴스

